

#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

최 가 진\*

(e-mail : gayou99@naver.com)

## < 목 차 >

- |                                |                                       |
|--------------------------------|---------------------------------------|
| 1.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선행연구 및 이계의 개념 | 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요괴의 유형 및 접촉 양상 |
| 2.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이계의 시공간  | 4.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   |

キーワード：諸國百物語(syokoku hyakumonogatari), 怪談集(ghost lore), 異界(the other world), 妖怪(Yokai), 江戸期(Edo period), 百物語(Hyakumonogatari),

## 1.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선행연구 및 이계의 개념

에도(江戸) 시대인 엔포(延宝) 5년(1677)에 성립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는 당시 일본 각지의 괴담을 한데모아 정리한 작자미상의 괴담집이다. 전 5권 구성에 권당 20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총100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으며,<sup>1)</sup> 총50개의 삽화가 이야기 중간마다 삽입되어 있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간행 이후 ‘하쿠모노가타리(百物語)’<sup>2)</sup> 라고 제목 붙인 괴담집군이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박사후 연구원, 일본문화학

- 1) 단, 이 중 36화는 『도노이구사(宿直草)』(연도미상), 『인가 모노가타리(因果物語)』(1661), 『소로리 모노가타리(僧侶利物語)』(1663) 등 그 이전에 성립한 불교설화집이나 괴담집에 수록된 이야기를 전거(典據)로 하고 있다. 塚野晶子(2016) 「『諸國百物語』論:怪異と人との關わりを中心に」 『國文學研究』, 早稻田大學國文學會, p.38
- 2) 해가 저물 무렵부터 한 자리에 쫓불 백 개를 밝히고 괴담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쫓불을 꺼서 새벽 세 시 무렵이 되면 반드시 요괴가 나타난다고 믿어지는 괴담회이다. 福田アジオ 編(2000) 『日本民俗大辭典 下』 吉川弘文館, p.440

다수 간행되어 ‘하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의 원류라고 평가되고 있으며,<sup>3)</sup> 다른 괴담집들과 달리 실제로 100편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4)</sup> 또한 괴이의 구체적이고 통일된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괴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되는 점<sup>5)</sup> 등 괴담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괴담집이 김영호(2014)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근세 일본인의 괴이에 대한 인식 정립에 영향을 미친 중요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속에 묘사된 괴이의 구체적 이미지, 요컨대 괴이가 발생한다고 믿었던 시공간이나 괴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 존재 등에 관해 상세히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초기 하쿠모노가타리 괴담집에 묘사된 괴이 묘사를 통해 근세 일본인의 괴이관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의 효시 작품’<sup>6)</sup>인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이후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어떻게 수용·변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그 이전에 성립한 괴담집·설화집과의 관계 속에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문학사적 가치를 밝힌 연구,<sup>7)</sup> 작품 속에 수록된 이야기 중 그 이전의 설화집이나 괴담집에 실린 이야기를 전거로 하고 있는 작품을 밝히고 양쪽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sup>8)</sup> 그리고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을 통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의 서술 특징 및 서사를 분석하여 전거작과 비교되는 특성을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sup>9)</sup> 최근의 연구로는 『쇼

3) 古明地樹(2015) 「怪異描寫の鮮明度-『諸國百物語』にみる近世的怪談文藝への志向-」 『學藝古典文學』 8, 東京學藝大學, p.153

4) 太刀川清(1987) 「解題」 『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 p.360

5) 김영호(2014)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고찰-성립배경과 ‘괴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60

6) 高田衛 編・校注(1989) 『江戸怪談集 下』 岩波書店, p.369

7)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太刀川清(1973) 「『諸國百物語』成立の背景」 『長野懸短期大學紀要』 28, 長野縣短期大學

8) 일본에서의 연구로는 小澤江美子(1992) 「延寶期の怪異小説考-『僧侶利物語』から『諸國百物語』へ」 『大妻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論集』 2, 大妻女子大學, 三浦達尋(2011) 「近世怪異小説における『ろくろ首』の登場: 『僧侶利物語』と『諸國百物語』の比較を通して」 『ナラティブ・メディア研究』 (3), ナラティブ・メディア研究會, 塚野晶子(2016) 「『諸國百物語』論: 『後妻(うわなり)うち』を中心に」 『昔話傳説研究』(35), 昔話傳説研究會, 塚野晶子(2017) 「『諸國百物語』論: 幽靈譚を中心に」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別冊24(2)』,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등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김영호(2014) 앞의 논문이 있다.

9) 윤혜성(2009)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 고찰: 서술과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

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장소’에 주목한 쓰카노 아키코(塚野晶子)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쓰카노는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서 제목에 ‘바케모노(ばけ物)’ 혹은 ‘헨게노모노(へんげの物)’라고 명기된 총22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각 사례마다 요괴가 출현하는 장소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sup>10)</sup> 그러나 쓰카노의 연구는 장소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없으며, 또한 제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요괴가 출현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결락되어 있다. 또 쓰카노는 ‘변소(廁, 雪隠)’를 사건의 배경으로 하는 9편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그 공간적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다른 괴담집과의 차별성을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하지만 이 역시 ‘변소’를 배경으로 하는 사례만을 한정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괴이의 구체적 이미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의 중요한 특징은 수록된 괴담들이 실제 체험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서문(序)」에서 “각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듣고 본 이야기 중 근거가 바른 것을 모아(その國々の諸人も聞きおよび見及びたる咄の証據たゞしきをあつめ)”<sup>12)</sup> 책으로 엮었다고 밝힘으로써 이 책에 수록된 괴이 체험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는 각 지방의 개인 혹은 집단이 실제로 경험했다고 믿는 세켄바나시(世間話)<sup>13)</sup>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간이야기로서의 괴담은 ‘거의 동시대의 다른 사람의 요괴 체험담’<sup>14)</sup>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괴이의 이미지는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괴이가 발생하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 즉 인간이

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0) 쓰카노 아키코는 ①주지의 사실로서 특정 장소에 요괴가 출현한다고 설정되어 있는 이야기, ②주지의 사실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장소에 요괴가 출현하는 이야기, ③요괴가 출현하는 장소에 관한 기술은 있지만 특정 장소에 출현한다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로 구별하고 있다. 塚野晶子(2017) 앞의 논문, pp.2-3

11) 塚野晶子(2018) 「『諸國百物語』論: 「廁」「雪隠」の怪異という觀點から」 『國文學研究』184, 早稻田大學國文學會

12) 太刀川清 校訂(1995) 앞의 책, p.6

13) 세간에서의 견문을 체험담이나 사실담 등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구승문예의 한 종류이다. 옛날이야기(昔話)보다 이야기하는 시기가 어조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14) 梅野光興(2008) 「『妖怪』をかたちづくるもの—幻覺の解釋學」 小松和彦選曆記念論集刊行會 編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法藏館, p.641

아닌 존재들의 활동 영역인 이계(異界)에 대한 관념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일본민속대사전(日本民俗大辭典)』에 따르면 이계란 민속사회에서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바깥에 펼쳐진 세계이자 요괴가 사는 세계이다.<sup>15)</sup> 또 민속학자 스와 하루오(諏訪春雄)에 의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과 겹치거나 그 주변에 펼쳐진 비밀상적인 공간으로, 유령의 세계인 타계(他界)와 달리 요괴가 존재하는 곳이다.<sup>16)</sup> 또한 요괴 연구가로 잘 알려진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사람들의 일상세계·일상생활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영역을 의미하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상상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7)</sup> 요약하자면 일본 민속에서 이계란, 영혼의 세계인 타계와는 구별되며 요괴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인간 세계의 주변에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이계 개념에 의거하여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100편의 이야기 중에서 요괴 체험담에 해당하는 55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표현된 이계의 시공간과 그곳에 출몰하는 요괴의 유형, 그리고 요괴와의 접촉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근세 시대 일본인이 지니고 있던 이계관의 일면을 규명해보고자 한다.<sup>18)</sup> 덧붙여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100편의 이야기 중 이계의 관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령담, 인간관계의 얽힘이 괴이(怪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전처 복수담, 여인이 집착으로 인해 뱀이 되는 변신담, 살생 등의 죄업 때문에 화를 당하는 불교적 응보담, 괴담적 요소가 없는 영험담 및 인물담에 해당하는 45편의 이야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요괴가 등장함으로써 이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55편으로 그 분석 범위를 한정하였다.<sup>19)</sup>

15) 福田アジオ 他編(1999) 『日本民俗大辭典 上』 吉川弘文館, p.68

16) 諏訪春雄(1988) 『日本の幽霊』 岩波書店, pp.24-25

17) 小松和彦(2006) 「序」 小松和彦 編 『日本人の異界観』 せりか書房, p.6.

18) 본고에서는 太刀川清 校訂(1995) 『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에 수록된 「諸國百物語」를 텍스트로 삼았다. 번역에 있어서는 김영호 역주(201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인문사를 참조하였다.

19)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 이야기의 ‘권-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8, 1-10, 1-12, 1-13, 1-15, 1-17, 2-1, 2-4, 2-5, 2-8, 2-9, 2-12, 2-14, 2-15, 2-16, 2-17, 2-20, 3-4, 3-5, 3-7, 3-9, 3-14, 3-16, 3-17, 3-19, 4-1, 4-4, 4-5, 4-7, 4-8, 4-11, 4-13, 4-14, 4-17, 4-18, 5-1, 5-6, 5-11, 5-13, 5-14, 5-15, 5-16, 5-18, 5-19, 5-20. 이하, 본고에서 지면 관계상 각 이야기의 제목은 생략하고 ‘권-화’의 형태로만 기술하기로 한다.

## 2.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이계의 시공간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이계의 시간과 공간 중 먼저 이계와 접촉하기 쉽다고 생각한 시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인 총55편의 요괴 체험담 중에서 인간이 이계와 접촉하게 되는 시간은 밤이 37편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미상의 경우가 14편, 이른 아침과 낮의 경우가 각각 4편, 저녁의 경우가 3편이었다.<sup>20)</sup>

일본 민속의 세계관 속에서 밤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인 낮과 대비되는 성스러운 시간으로,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 존재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세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오니(鬼) 등이 출몰하는 시간이 주로 밤이라는 점은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21)</sup>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인간이 이계로 들어가는 혹은 이계의 존재가 인간의 생활 속으로 침범하는 시간은 ‘밤(夜, 夜半)’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해질 무렵(日くれがた)’이나 ‘날이 어슴푸레하게 밝은 때(ほのほのあけ)’ 등이 인간이 이계와 접촉하는 시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또한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이행하는 ‘경계적 시간(liminal time)’<sup>22)</sup>이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이러한 민속적 관념에 따라 인간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밤이 이계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시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인간이 활동을 접기 시작하는 해질 무렵이나 아직 완전히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이른 아침 등은 이계와 연결되어 가는 시간, 혹은 이계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시간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4·1-16·3-13·4-9화는 인간의 활동시간인 ‘낮(ひる)’에 이계의 존재와 접촉한다는 점에서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 접촉 장소가 모두 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1-4화에서는 마쓰우라 이요(松浦伊予)라는

20) 각 화수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밤인 사례는 1-1, 1-2, 1-3, 1-4, 1-6, 1-9, 1-10, 1-11, 1-16, 1-18, 1-19, 2-2, 2-3, 2-6, 2-7, 2-10, 2-11, 2-13, 2-18, 2-19, 3-1, 3-3, 3-6, 3-11, 3-12, 3-15, 3-20, 4-2, 4-3, 4-4, 4-10, 4-15, 4-16, 5-4, 5-10, 5-12, 5-17. ②미상인 사례는 1-7, 1-14, 1-20, 3-2, 3-8, 4-12, 4-19, 4-20, 5-2, 5-3, 5-5, 5-7, 5-8, 5-9. ③이른 아침인 사례는 1-5, 2-11, 4-6, 4-9, 낮의 사례는 1-4, 1-16, 3-13, 4-9. ④저녁인 사례는 3-10, 3-13, 3-18이다.

21) 이시준(2018) 『『금석이야기집(今昔物語集)』의 이계(異界)·이향(異郷) 관련 설화에 관한 고찰』 『일본학연구』제53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258, p.268 참조.

22) 저녁때나 새벽녘 등의 애매한 시간은 속(俗)으로도 성(聖)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으며, 악령이나 괴물이 출현하는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다. 미야케 히토시 저·김용의 외 역(2013) 『종교민속학』 민속원, pp.124-125. 참조.

사람의 집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난 후에 7일 동안 연속해서 요괴가 출몰하며, 3-13화에서는 어떤 무사의 저택에 요괴가 출몰하기 시작하더니 낮에도 요괴를 목격하는 일이 발생해 결국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두 사례 모두 인간의 공간이었던 집이 ‘요괴 저택(化物屋敷)’이라는 이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낮에도 요괴가 출몰하고 있다. 또한 1-16화에서 구리타 겐하치(栗田源八)라는 무사는 낮에 자신의 집 뒤편 들판에 있는 밤나무 가지 사이에서 이를 검게 칠한 백발의 여인을 목격하며, 4-9화에서는 산골마을에 사는 촌장이 낮에 방문을 열었다가 큰 뱀이 자신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을 마주한다. 이는 인간의 시간으로 간주되는 ‘낮의 집’일지라도 이계의 존재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표현된 이계와의 조우 시간은 주로 ‘밤’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낮’에 속하는 시간이 요괴에게 있어서 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라고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단, 낮의 경우 아무 때나 이계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의 사례들처럼 ‘지진’이라는 일상 외의 사건이나 ‘집 뒤편 들판’의 ‘나무 가지 사이’, ‘산골마을’에 있는 집 등 경계성을 띠고 있는 사건 및 장소와 관련됐을 때의 낮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낮일지라도 공간이 지닌 경계성을 매개로 일상이 이계로 변모하거나 이계의 존재가 침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이어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이계라고 상정한 공간, 혹은 이계와 경계하고 있어서 요괴가 출현한다고 생각한 공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1>과 <표2>는 요괴가 출현하는 장소를 자연적 이계와 비자연적 이계로 분류한 뒤에 그 등장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자연적 이계

등장순위	자연적 이계	출전(권-화)
1	산	1-1, 1-2, 1-3, 2-2, 2-6, 3-1, 3-8, 3-18, 3-20, 4-2, 4-6, 4-9, 4-20
2	들판	1-6, 1-10, 1-16, 2-3
3	연못	1-18, 4-12, 5-5
	동굴	2-6, 2-10, 3-12
4	바다	4-19, 5-3

&lt;표2&gt;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비자연적 이계

등장순위	비자연적 이계	출전(권-화)
1	집·저택·성	1-1, 1-2, 1-4, 1-11, 1-14, 1-16, 1-19, 2-2, 2-6, 2-7, 2-13, 2-18, 2-19, 3-2, 3-3, 3-10, 3-11, 3-12, 3-13, 3-15, 3-18, 4-2, 4-9, 4-12, 4-15, 4-16, 4-20, 5-4, 5-9
2	신사·불당·석탑	1-2, 1-18, 1-19, 2-3, 2-11, 3-1, 3-20, 4-3, 4-10, 5-2, 5-3, 5-7, 5-8, 5-17
3	무덤·화장장	1-6, 1-7, 3-6, 5-10
4	다리	1-3, 1-5, 3-20
5	거리	1-9
	온천	1-20
	수로	2-19
	휴게소	5-12

<표1>과 <표2>를 보면 요괴 체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이계로는 산(山)이 13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들판(野)이 4편, 연못(淵, 池)과 동굴(岩あな, 洞)이 각 3편, 바다(崎, 浦)가 2편 등장하고 있다. 한편, 비자연적 이계로는 집(家)·저택(屋敷)·성(城)이 29편으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신사(神社, 宮)·불당(堂)·석탑(石塔) 등 신앙과 관련된 장소로 14편에 걸쳐 등장한다. 다음으로는 죽음과 관련된 공간인 무덤(廟所, 墓)·화장장(蓮台野)이 4편 등장하며 이 외에 다리(橋)가 3화, 온천(湯), 수로(堀), 휴게소(ちや屋)가 각 1편씩 이계 또는 이계와의 경계로 설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이계의 공간으로 묘사된 곳들의 공통점은 앞서 기술한 이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계 영역(liminal space)’<sup>23)</sup>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 이계로 상정된 산, 들판, 연못, 동굴, 바다 등은 인간이 생활하는 마을(도시) 공간과 그 외의 세계를 구분 짓는 경계 지점이자 타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히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활동하는 이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자연적인 이계 공간으로 등장하는 신사, 불당, 석탑, 다리, 무덤, 화장장, 수로 또한 인간의 생활공

23) 미야케 히토시 저·김용의 외 역(2013) 앞의 책, pp.126-127. 참조.

간 내에서도 거주 공간과 비거주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계적 장소에 해당한다. 또 온천과 휴게소라는 공간은 치료나 여행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일상과 비일상을 구분 짓는 경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들은 일본 민속에서 ‘성(聖)도 속(俗)도 아닌 애매한 공간’<sup>24)</sup>으로, 외계성과 주변성을 지니며 이러한 장소들은 어떤 종류의 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sup>25)</sup> 다시 말하자면 산이나 신사 등은 신(神)을 비롯한 초자연적 존재들의 성의 영역이지만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속의 영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존재하며 인간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두 세계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계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적 공간에서 평범한 공간과는 다른 특수한 힘이나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묘사된 이계 공간은 이러한 민속적 세계관의 수용 하에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와 같이 집 다음으로 이계 공간으로서 많이 묘사되고 있는 신사, 불당, 석탑은 종교적 공간으로 중세부터 신불(神佛)을 비롯해 요괴·유령 등 초자연적인 존재가 깃들기 쉬운 곳이라 믿어졌으며, 세 번째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 무덤과 화장장 또한 사자(死者)의 영역으로서 괴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이러한 민속적 관념을 바탕으로 경계의 공간들이 이계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비자연적 이계 중에 인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집·저택·성(이하 ‘집’)이 요괴와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되는 총 29편의 사례를 ‘인간의 거주 공간’이라는 집의 가장 큰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각 유형을 사례 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① 인간의 거주 공간 내에서도 특수한 장소에서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9편)
- 유형② 과거 인간의 거주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요괴 저택으로 알려진 집에서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7편)
- 유형③ 인간의 거주 공간이지만 이계와 가깝게 위치한 집에서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6편)

24) 미야케 히토시 저·김용의 외 역(2013) 앞의 책, p.126.

25) 宮田登(2001) 『都市空間の怪異』 角川選書, p.116. 참고.

- 유형④ 다른 장소에서 요괴와 접촉한 이후 거주 공간인 집에서도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4편)
- 유형⑤ 일반적인 인간의 거주 공간에서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3편)

유형①은 변소에서 요괴를 목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변소는 집 구조 내에서 일상 생활공간과는 분리된 경계 영역으로, 예로부터 축신(廁神)이 사는 장소이자 다른 세계와의 ‘통로’라는 관념이 존재했다.<sup>26)</sup>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요괴가 이러한 거주 공간 속의 경계 영역을 통해 집에 출현하고 있다. 변소 외에도 히메지 성(姫路城)의 천수각이나 여행길에 숙소로 빌린 상인의 집, 주나곤(中納言)이 죽은 집에서 괴이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천수각’은 성 내에서 일상생활 공간이 아닌 특수 공간이며, 주나곤의 집 또한 ‘상갓집’이라는 비밀상성을 띠고 있는 집으로 변모해 있다. 이러한 일상 속의 비밀상적 공간을 경계삼아 요괴가 출몰함으로써 인간의 공간인 집이 일시적으로 이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형②도 오니가 사는 집 또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にわかにならふしぎなる事出できたり)”는 요괴 저택에서 괴이와 마주하게 된다. 집이라 하더라도 오니나 요괴처럼 인간 외의 존재가 거주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닌 이계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유형③은 뒤편 들판에 큰 밤나무가 있는 집, 뒤에 작은 수로가 있는 저택, 북서쪽에 덩불이 있는 집, 산 속에 있는 집, 근처에 연못이 있는 집과 같이 특징이 있는 집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큰 나무, 수로, 덩불, 산 속, 연못이 이계 또는 이계로의 통로가 되는 경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가깝게 위치한 집에서 요괴가 출몰하게 된다. 유형④의 경우는 주인공이 신사나 불당, 산 속 등 일상과 구별되는 비밀상적 공간 즉 이계를 방문하고 그것이 연결고리고 작용하여 역으로 이계의 존재가 일상 공간인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다. 마지막 유형⑤는 어떤 특징이나 이계로의 방문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인간의 거주 공간에서 요괴 체험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는 29편중 3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이계 공간 인식을 벗어난 예외의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요괴와의 접촉이 ‘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인 집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집

26) 宮田登(1990) 『妖怪の民俗學』 岩波書店, p.76. 참고.

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구분되는 특수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장소, 이계의 존재가 깃든 이상한 집, 이계 또는 그 경계 지표와 가까이 위치한 외연성이 있는 집, 이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간의 집 등과 같이 경계적 성질과 결부되어 있는 ‘집’이 이계 체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 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요괴의 유형 및 접촉 양상

여기에서는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어떤 존재들이 이계의 존재 즉 요괴로 상정되어 있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인간이 이계의 존재와 어떻게 접촉하게 되며 이 사건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함으로써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나는 근세 일본인의 이계관을 좀 더 상세히 포착해보고자 한다.

먼저,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요괴는 총 29종류이며,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을 한 요괴로 16편에 걸쳐 등장한다.<sup>27)</sup> 다음으로는 큰 뱀이 6편, 남자의 모습을 한 요괴·너구리·텐구(天狗)가 각 4편, 오보즈(大ぼうず)·오니(鬼)가 각 3편, 아이의 모습을 한 요괴·네코마타(猫また)가 각 2편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 로쿠로쿠비(ろくろくび)·흙거미(土蜘蛛)·가타와구루마(片輪車)<sup>28)</sup>·여우·갈식(囓食) 승려·가게노와즈라이(かげの煩)<sup>29)</sup>·벤자이텐(辯才天)·슈노반(首番)이라는 이름의 요괴·지신(地神)·산신(山の神)·거꾸로 자란 송이버섯·버섯·화로 삼발이·화차(火車)·상괘이·청개구리·문둥병 환자의 아내·푸른백로·참억새풀이 각 1편씩 등장하고 있다.<sup>30)</sup> 이를 유형별로

27) 단, 이를 가리키는 명칭은 헨게노모노(へんげの物), 헨게(變化), 바케모노(ばけ物), 마성(ましよう), 귀신(鬼神) 등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28) 요괴의 일종으로 불꽃에 쌓인 수레바퀴에 남자 또는 여자의 얼굴이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나, 남자나 여자가 바퀴에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29)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와 본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어느 쪽이 본체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며, 일종의 병(病)이라 여겼다. 이혼병(離魂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0) 단, 문둥병 환자의 아내, 해오라기, 참억새풀의 경우 그 실체는 요괴가 아니었으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퇴치에 도전함으로써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요괴로 인식되고 있던 존재들이다.

분류한 후에 등장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3>이다.

<표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요괴 유형

등장순위	요괴 유형	출전(권-화)
1	인간형	1-1, 1-2, 1-3, 1-4, 1-5, 1-7, 1-10, 1-11, 1-14, 1-16, 1-18, 1-19, 1-20, 2-2, 2-3, 2-13, 2-18, 2-19, 3-1, 3-3, 3-6, 3-8, 3-10, 3-11, 3-13, 3-15, 3-20, 4-2, 4-3, 4-6, 4-10, 5-4, 5-7, 5-9, 5-10
2	동물형	1-6, 2-6, 2-7, 2-10, 2-11, 3-12, 3-18, 4-9, 4-12, 4-15, 4-16, 4-19, 5-3, 5-5, 5-8, 5-9, 5-17
3	식물형	3-2, 4-20, 5-12
	기물형	1-9, 5-2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요괴의 유형은 인간형이 35편, 동물형이 17편, 식물형이 3편, 기물형이 2편으로 인간형의 요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술한 내용과 종합해보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는 인간형의 요괴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모습을 한 요괴가 가장 자주 출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형 요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요괴와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집, 저택, 성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주요 공간 배경이 인간의 활동 영역이므로 그곳에 출몰하는 요괴 유형도 자연스럽게 인간형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형 중에서도 여성형 요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가 성립할 당시 일본인이 지니고 있는 이계에 속한 존재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여성형 요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중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 차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고대에는 여성에 대한 부정 관념이 희박했으나 불교와 율령제 등의 중앙집권적 시스템 수용

에 따라 점차 여성을 천시하고 차별하는 관념이 생성됐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중세에 들어오면 각종 사료에서 여성의 부정(穢れ)에 대한 기술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sup>31)</sup> 이는 중세의 대표적 불교·세속 설화집인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와 『우지슈이 모노가타리(拾遺物語)』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들 설화집 속에서 여성은 불교 수행을 방해하는 유혹자로 표현되거나, 애욕 또는 질투심으로 인해 뱀(蛇)이나 오니(鬼)로 변신하는 등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괴적 존재로 묘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정착시켜 갔던 것이다.

햐쿠모노가타리 괴담집의 효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 여성형 요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중세에 시작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마찬가지로 요괴라는 부정한 존재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근세 초기부터 여성형 요괴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중세부터 이어진 여성=부정하고 요괴성을 띤 존재라는 관념이 근세로 이어지면서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서도 요괴는 주로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정착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큰 변화 없이 후대의 괴담집에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근세 일본인은 요괴와 같이 이계에 속하는 존재들과의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 『쇼코쿠 햐쿠모노가타리』에서 인간과 이계의 접촉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①요괴가 있는 곳에 인간이 방문하는 경우, ②인간이 있는 곳에 요괴가 방문하는 경우, ③인간이 요괴가 있는 곳을 방문한 후에 요괴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거나 따라오는 경우이다. 이는 인간도 이계에 갈 수 있으며 이계의 존재 또한 인간 세계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즉, 인간과 이계와의 접촉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방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왕래가 가능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②, ③의 유형과 같이 인간의 생활공간으로 평소에는 이계가 아닌 시공간이라도 요괴의 방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계화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인식했음이 확인된다.

물론 1-2화의 “요괴가 사는 곳(ばけ物のすむ所)”, 2-2화의 “요괴가 사는 집(ばけ物のすむ家)”, 3-6화의 “시치조가와라의 무덤에 요괴가 있다고 전해져서

31) 김문자(2018) 「여성에 대한 「穢れ」관념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과정」 『일본연구』 29,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七條がはらの墓所にばけ物あるといひつたへ)”, 4-10화의 “아사마 신사에는 요괴가 있다(あさまの社にはばけ物あり)” 등의 기술처럼 처음부터 이계로 명확하게 상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석 대상인 55편 중 대다수의 사례가 일상적인 인간의 공간에 이계의 존재가 출현함으로써 그곳이 비일상적인 시공간으로 변모하는, 일상 공간의 이계화가 발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컨대 인간과 이계의 접촉 양상을 통해 본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는 인간 세계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주변에 존재하면서, 낮에서 밤으로의 시간의 변화나 금기의 위반 등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양쪽 세계의 존재가 서로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인간 세계와의 연결성을 지닌 세계라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계와 접촉한 인간이 어떠한 결말을 맺는지 살펴봄으로써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을 좀 더 선명하게 포착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분석한 총55편의 요괴 체험담 중에서 이계와의 접촉을 경험한 이후의 인간의 결말은 첫째, 죽거나 병에 걸리는 등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가 2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가 17편, 셋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5편, 넷째, 불도에 귀의하는 경우가 3편,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내에서 이계와 접촉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인간이 이계와 접촉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계 방문이나 이계의 존재인 요괴와의 접촉은 인간에게 해를 초래하는 부정(不淨)한 사건이며, 따라서 기피해야만 하는 인간 세계의 대립 영역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이계 인식은 일부 사례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1-9화 “교토 히가시노토인 거리에 옛날 가타와쿠루마라고 하는 요괴가 있었는데…(중략)…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하여 왕래하는 일이 없었다(京東洞院通にむかし片輪車と云ふばけ物ありけるが…(中略)…日ぐれになればみな人をそれて往來する事なし).” [太刀川清 校訂(1995):28]
- 3-1화 “이 불당에 요괴가 있다고 해서 오후 4시가 지나면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このどうにばけ物ありて七つすぐれば人ゆくことなし).” [太刀川清

校訂(1995):65]

- 3-2화 “어떤 사람의 집 변소에 요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さる人の家のせつちんにばけ物ありとて人ゆく事なし).” [太刀川清 校訂(1995):68]
- 3-3화 “이 저택에는 요괴가 옛날부터 산다고 해서 아무도 하룻밤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此屋敷には、ばけ物むかしよりすみて、いづれの人も一夜もゐる事なし).” [太刀川清 校訂(1995):68]
- 3-13화 “무서운 일이 많아서 이 저택에 사는 사람이 없다(すさまじき事おゝくして、此屋敷にすむ人なし).” [太刀川清 校訂(1995):82]
- 4-3화 “대불 산주산켄도에는 요괴가 있다고 해서 오후 4시가 지나면 사람이 가지 않았다(大仏三十三間どうにはばけ物ありて、七つさがれば人ゆかず).” [太刀川清 校訂(1995):93]

위와 같이 요괴가 출몰하거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장소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인간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이계로 간주되어 방문을 기피했던 것이다. 죽음이나 질병을 경험하는 사례에 이어 인간이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많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세계와의 대립 영역인 이계에 속하는 요괴는 마찬가지로 부정한 존재로서 인간을 해치거나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퇴치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처럼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분석 대상인 55편의 사례 중에 이계와의 접촉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5편에 불과하며, 불도에 귀의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5편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5편이 인간의 죽음이나 질병, 또는 요괴 퇴치의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이계를 대립적 세계로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요컨대 근세 일본인은 이계라는 비일상적인 세계와의 접촉은 인간에게 대부분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주며, 그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이자면 부정적 결말의 사례 중에서도 인간이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인간과 요괴의 대립항적인 관계 속에서 힘의 우열을 생각할 때, 이계에 속하는 존재의 힘이 더 강하다고

간주했다는 것이 된다. 즉, 당시 사람들은 인간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 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후자의 힘이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이계와 이곳에 속한 요괴를 외포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 같은 이계 인식은 요괴가 인간에게 농락당하거나 익살스럽게 묘사되는 등 요괴를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근세 중기 이후의 괴담집 및 괴이소설 속에 나타나는 이계 인식과는 대조된다.<sup>32)</sup> 이는 중세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오니·원령 신앙 등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공포 관념이 초기 괴담집인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요괴 및 이계와의 접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야기 속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 4.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

이상, 근세 하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의 효시 작품으로서 근세의 괴이 인식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수록된 100편의 괴담 중, 요괴 체험담에 해당하는 55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묘사된 이계의 시공간과 이계에 속하는 요괴의 유형 및 인간과 이계와의 접촉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의 일면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이계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일본의 민속 관념에 따라 이계를 경계적 시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계와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시간은 밤, 해질 무렵, 동틀 무렵 등 시간의 이행에 있어서 경계적 시간에 해당한다. 이 시간들은 이계와 연결되는 시간, 혹은 이계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시간이다. 단, 괴이 체험 장소

32) 고마쓰 가즈히코 저·박전열 역(2009)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p.6 참조.

33) 일본 근세 시대에 이계에 대한 이 같은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세한 양상은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이후에 성립한 하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 간의 비교·고찰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다.

가 집인 경우에는 종종 인간의 활동 시간인 낮에도 이계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계와의 조우 시간이 주로 밤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낮일지라도 공간이 지닌 경계성을 매개로 일상이 이계로 변모하거나 이계의 존재가 침범할 수 있다는 유동적 인식이 확인된다.

이계 공간의 경우 또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민속 세계에서 경계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장소들이 이계로 상정되어 있다. 분석 사례 중에 요괴 체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이계는 산(山)이며, 비자연적 이계는 집, 신사, 불당이다. 이중에 산·신사·불당은 신불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온 성(聖)의 영역이지만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속(俗)의 주변부에 존재해서 인간이 왕래함으로써 성도 속도 아닌 경계성을 띠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예전부터 신비한 사건이 발생하는 곳으로 여겨 왔으며, 이러한 민속적 이계 인식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덧붙여서 비자연적 이계 중에 집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집 내부에서도 생활공간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장소, 이계의 존재가 깃든 이상한 집, 이계 또는 그 경계 지표와 가까이 위치한 외연성이 있는 집, 이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간의 집이다. 즉, 인간의 공간인 집이라도 이계와의 연결성을 띠고 있는 장소가 존재하거나 요괴와의 접촉 등 이계와의 통로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라도 일시적 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둘째, 이계에 속하는 존재인 요괴의 일반적 이미지는 인간형, 그중에서도 여성형이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인간형 요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요괴와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집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지어볼 수 있다. 이야기의 주요 공간 배경이 인간의 활동 영역이므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따라 그곳에 출몰하는 요괴 유형도 자연스럽게 인간형이 많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성형 요괴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것은 불교·세속 설화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중세에 시작된 ‘여성=부정(穢れ)’ 관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괴담 속에서 요괴의 부정성과 결합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도 요괴는 주로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괴 이미지가 큰 변화 없이 후대에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인간과 이계와의 접촉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방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왕래가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접촉 양상은

①요괴가 있는 곳에 인간이 방문, ②인간이 있는 곳에 요괴가 방문, ③인간이 요괴가 있는 곳을 방문한 후에 요괴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방문이라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계는 인간 세계의 주변에 존재하나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며, 시간의 이행이나 금기 위반 등의 요인이 작용할 때 양쪽 세계를 잇는 통로가 발생한다. 즉, 인간 세계와의 연결성을 지닌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계를 인간 세계의 대립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분석한 55편의 사례들에서 이계와 접촉한 인간의 결말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이계 접촉은 인간에게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보다 인간이 죽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은 인간 세계와 이계와의 대립에 있어서 후자의 힘이 우위에 있다고 간주해 이계의 존재를 외포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말해준다. 이는 오니·원령 신앙으로 대표되는 중세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공포 관념이 근세에도 이어졌고, 그 영향이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에서 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본고는 근세에 유행했던 하쿠모노가타리 계열 괴담집의 원류에 해당하는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의 요괴 체험담 분석을 통해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근세에 성립한 하쿠모노가타리 괴담집이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그 일부만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향후 과제로서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의 이계 이미지와 후대 괴담집들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이 어떻게 수용·변천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근세 일본인의 이계 인식의 전체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텍스트>

김영호 역주(2013)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인문사  
太刀川清 校訂(1995) 『諸國百物語』, 『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

### <참고문헌>

김영호(2014)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 고찰-성립배경과 '괴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6,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60.

- 김문자(2018) 「女性에 대한 「穢れ」관념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과정」 『일본연구』 29,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p.4, p.10. (DOI:http://dx.doi.org/10.32624/stofja.2018..29.89)
- 고마쓰 가즈히코 저·박전열 역(2009)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p.6.
- 미야케 히토시 저·김용의 외 역(2013) 『중요민속학』, 민속원, pp.124-127.
- 이시준(2018) 「『금석이야기집(今昔物語集)』의 이계(異界)·이향(異郷) 관련 설화에 관한 고찰」 『일본학연구』 제53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258, p.268.
- 윤혜성(2009) 「『쇼코쿠 하쿠모노가타리(諸國百物語)』 고찰: 서술과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梅野光興(2008) 「『妖怪をかたちづくるもの—幻覺の解釋學』 『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 小松和彦選輯記念論集刊行會 編, 法藏館, p.641.
- 小澤江美子(1992) 「延寶期の怪異小説考—『僧侶利物語』から『諸國百物語』へ」 『大妻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論集』 2, 大妻女子大學
- 小松和彦(2006) 「序」, 小松和彦 編 『日本人の異界觀』, せりか書房, p.6.
- 古明地樹(2015) 「怪異描寫の鮮明度—『諸國百物語』にみる近世的怪談文藝への志向」 『學藝古典文學』 8, 東京學藝大學, p.153.
- 諏訪春雄(1988) 『日本の幽霊』 岩波書店, pp.24-25.
- 高田衛 編·校注(1989) 『江戸怪談集 下』 岩波書店, p.369.
- 太刀川清(1973) 「『諸國百物語』成立の背景」 『長野懸短期大學紀要』 28, 長野縣短期大學
- \_\_\_\_\_ (1987) 「解題」 『百物語怪談集成』, 國書刊行會, p.360.
- 塚野晶子(2016) 「『諸國百物語』論:怪異と人との関わりを中心に」 『國文學研究』, 早稻田大學國文學會, p.38
- \_\_\_\_\_ (2016) 「『諸國百物語』論:「後妻(うわなり)うち」を中心に」 『昔話傳説研究』 (35), 昔話傳説研究會
- \_\_\_\_\_ (2017) 「『諸國百物語』論:幽霊譚を中心に」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別冊24(2)』, 早稻田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 \_\_\_\_\_ (2018) 「『諸國百物語』論:「廁」「雪隠」の怪異という觀點から」 『國文學研究』 184, 早稻田大學國文學會
- 福田アジオ 他編(1999) 『日本民俗大辭典 上』, 吉川弘文館, p.68.
- \_\_\_\_\_ アジオ (2000) 『日本民俗大辭典 下』, 吉川弘文館, p.440.
- 三浦達尋(2011) 「近世怪異小説における「ろくろ首」の登場:『僧侶利物語』と『諸國百物語』の比較を通して」, 『ナラティブ・メディア研究』 (3), ナラティブ・メディア研究會
- 宮田登(1990) 『妖怪の民俗學』 岩波書店, p.76.
- \_\_\_\_\_ (2001) 『都市空間の怪異』 角川選書, p.116.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諸國百物語』に表れる近世日本人の異界認識

崔嘉珍

本稿は近世の百物語系列怪談集の嚆矢的な作品として、近世の怪異認識の確立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と評価される『諸國百物語』に収録された100話の怪談中、妖怪体験談である55話を分析対象にして、その中に描寫された異界の時空間と異界に屬する妖怪の類型及び人間と異界との接触様相を見ることで、近世日本人の異界認識の一面を確認して見ようとした。考察した内容を整理してみると『諸國百物語』に表れた異界への認識は次の通りである。まず第一に、伝統的な日本の民俗觀念によって異界を境界的な時空間と考えている。第二に、異界に屬する存在である妖怪の一般的なイメージは人間型、その中でも女性型という認識が確認できる。第三に、人間と異界との接触はどちらかの一方的な訪問によって行われるのではなく、相互往來が可能であるという認識が確認できる。即ち、人間世界とのつながりを持っている世界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第四に、異界を人間世界の對立的な領域として認識している。要するに、異界との接触は人間によって多くの場合、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いう認識が非常に強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る。また、人間世界と異界との對立において、後者の力が優位にあると見なし、異界の存在を畏怖の對象として考えていたことが分かる。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other world for Japanese in the modern age  
as shown in “*Syokoku Hyakumonogatari*”

Choi, Ga-Jin

This study of the pioneering work of ghost stories of modern Hyakumonogatari investigates one side of the perception of the other world for modern Japanese by examining the time and space of such described worlds, the Yokai's which belong to the other world, and contacts between humans and the other. Fifty-five of 100 ghost stories contained in “*Syokoku Hyakumonogatari*”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Consequently, the perception of the other world shown in “*Syokoku Hyakumonogatari*”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ther world was considered a boundary of time and space according to traditional Japanese folklore.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Yokai were conceived as being human-like or, more accurately, female. Third, this study has shown that mutual visits between worlds were conceived as being possible, not simply one-sided. Fourth, the human world was considered to be the place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mortal and the spirit plane. In conclusion, these tales overwhelmingly recognized that contacts between the mortal and spiritual plane had a mostly negative effect on humans.